

2022 완도해조류박람회 준비 본격화



부서별 중점 과제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간

완도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봉진문 부군수 주재 하에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중점 과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군 역점 사업인 해양지류 산업과 연계하여 해조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형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중점 과제를 점검·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중점 과제로는 박람회 홍보, 완도국제해양바이오산업 심포지엄 개최, 범군민 지일협의회 구성·운영, 박람회 연계 관광 상품 개발, 국내외 관람객 유치, 전시관 설치 및 전시 연출, 숙박·위생업소 종합관리대책 추진 등이다. 군은 보고회를 시작으로 2022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품목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라 올해 4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를 1년 연기하였다.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최저의 바다, 가장 나은 곳'이라는 주제로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간 완도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도=이민혁기자



(왼쪽 3번부터) 이석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명현관 해남군수, 김현석 국가농림기상센터장

해남군, 서울대·국가농림기상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역량 강화 업무협약

명현관 군수 "농업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해남군은 12일 서울대학교와 국가농림기상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서울대학교 이석하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김학진 교수, 김현석 국가농림기상센터장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대표 농군인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도의 시작점이자 경지면적 3만

4,000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있는 해남군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관문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 농업분야의 대응전략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성의 산실인 서울대학교와 농림기상을 연구하는 국가농림기상센터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농업 분야 연구 역량강화와 공모사업 유치 등 업무추진도 원활히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해 상황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가 농업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 연구 진행을 통해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본격 착수 노후 상수관 22.8km 교체...교통통제 및 소통대책 마련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진읍 급수구역 등 16개 블록에 대한 관망 분석과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무리하고 노후화된 상수관로 교체 등 본격적인 시설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5년간 193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읍·면별 유량·수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블록구축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는 2022년까지 낡은 배수관을 교체해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고 누수량을 최소화

화해 우수율을 8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올해는 100억 원을 들여 20년 이상 경과된 수돗물 배수관 중 노후도가 심한 강진읍 급수구역을 중심으로 관망 정비 공사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도로굴착 등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과 수돗물 공급 차질에 대비하여 구간통제·소통계획과 급수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고를 통

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의 수질과 수량 안정화는 물론, 수돗물 원가를 절감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 수도사업의 경영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친환경 농업 조성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매년 150t 생산·공급...농작물 토양 환경 개선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대



진도군이 올해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유용미생물 제제 150t을 자체 생산해 원예·축산농가 등에 공급한다. 미생물제를 일정한 시설을 이용

해 배양한 후 원예·축산농가에서 활용하면 항생제, 화학비료의 사용 절감, 축사 악취저감 효과 등 농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농작물 토양환경 개선과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은 물론 친환경 농업의 필수 요소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4,118 농가를 대상으로 광합성균 등 총 78t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농약 등의 사용량이 감소했다. 특히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연말 16억원을 투입, 진도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을 통해 실험실, 배양실, 기계실, 저온창고 등 부대시설을 완비했다. 이를 통해 매년 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 농가 만족도와 효율도를 높이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과 배양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탐진강 제방 참죽나무 시범 식재

강진군은 지난 9일 군동면 석교리 탐진강 제방에 참죽나무 21주를 시범 식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재한 참죽나무(수고 4m, 근원직경 6cm)는 지난 2008년 마량면 영동리 군유림에 조립한 수목을 굴취하였으며, 목재나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에 식재하였다. 참죽나무는 줄기가 곧게 자라며 가지가 적고 짧아서 좁은 수관을 만든다. 목재는 담홍색 또는 흑갈색이며, 결이 고와 가공도 쉽고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아 악기재, 가구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4월 중 뺨간 순이 13-15cm 정도 자라면 두툼처럼 채취하여 나물로 데치거나 튀겨 만들어 먹기도 한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참죽나무의 생육상태와 목재, 임산물로서의 가치 등을 확인하고, 효용가치가 높다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식재하여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사전 심사 청구제' 연중 운영

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변경) 허가 ▲전기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건축 허가 ▲건

축물 용도 변경 ▲하천점용 허가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사전심사 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